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885

JCCT 2023-9-10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신은선*

Shin Eun S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두개 종합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98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전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었고, 설명력은 44.8%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전공에 만족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요어 : 대학생활적응,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study included 298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the region,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pril 24 to May 9, 2023. Results, I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adjustment and stres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was the predictor variable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found to be 44.8%. This shows that nursing students with high self-efficacy are satisfied with their majors and adapt well to university life if they choose nursing stud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various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ey words : Adjustment to College Lif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Stress

1. 서론

간호대학생 시기는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찾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성숙한 직업

1. 연구의 필요성

*정회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주저자 및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8월 22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August 22, 2023 / Revised: August 30,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ses0889@naver.com

Dept. of Nursing Science, Gwangju Univ, Korea

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1].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기반으로 한 진로목표나 진로계획 없이 학업성적과 취업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2].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해져 있고 취업률이 높은 반면, 자신의 전공에 대한 탐색과 평가가 부족하다[1]. 그리하여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없이 취업을 하면서 이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을 못하여 조기 이직하게 된다[3]. 현재 간호학과는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맞춘 성과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탐색과 취업향상을 위해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1]. 그래서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진로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진로결정을 스스로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4].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발생하는 정신, 심리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에게 발달과업 및 전인적인 돌봄을 실천하는데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5]. 간호대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 과중한 학업, 국가고시 준비, 취업준비 등으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6]. 그래서 대학생활 초기때부터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7]. 또한 대학의 불안정한 재정도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8], 대학생활 부적응은 학업의 중도탈락을 초래시켜, 중도탈락은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9].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취업과 진로지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학생활적응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0]. 그래서 대학생활적응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11].

한편 스트레스는 내·외적 자원이 부족하여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적, 생리적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12].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우관계, 학업, 이성관계, 장래, 교수와의 관계, 가치관,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때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11].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 긴장,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학업 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3].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인 요인과 전공만족도와 같은 외적인 요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공만족도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 최근에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요인이다[1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15],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대처하여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한다[16]. 그리고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학과는 졸업 후의 진로가 이미 정해진 특수성이 있는 학과이므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17].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전공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통하여 가치, 기대, 신념, 충족감, 성취감 등을 갖는 것이다[18].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은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으로,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19]. 간호대학생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을 유지하는 과정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의 흥미, 소질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한다[20].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정확한 목표나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22]. 특히 취업만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중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소가 되었다[11].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잘 적응하고 임상현장에 적응력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친다[1].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전공과 관련된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임상실무 적응과 이직에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23].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진로 및 취업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아정체성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의미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연구는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전공몰입 경험,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 진로결정몰입, 진로탐색행동, 진로동기 등을 확인한 연구[1-4][19][23-26]로 대부분 진로 변인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대학생활 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 등은 개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할 수 있는 변인으로써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준비를 명확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지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 1)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두개 종합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이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작은크기인 .10, 검정력 .95로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1]에 따라 효과크기 .10(small), 예측변인 11개로 계산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262명이었다[27]. 이를 근거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314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하고 총 298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박신영[2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에 걸쳐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전공만족, 전공 수월성, 대처역량, 취업준비, 학업 충실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부적응 문항 11, 16, 17번 문항은 역 환산 후 채점하였다. 총점은 34점에서 17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신영[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전경구, 김교현과 이주석[29]이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이지영[3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8개의 하위영역에 걸쳐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은 동성친구, 이성친구, 가족관계, 교수관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영역 23문항과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애문제, 가치관 문제와 관련된 당면과제 스트레스 영역 27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자주 받는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은 50점에서 25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지영[3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하혜숙[31]이 제작한 34문항으로 구성된 학과만족 도구를 이동재[32]가 간호학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은 18점에서 9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3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22]가 개발하고 이은진[33]이 번안한 도구를 윤지은[34]이 수정, 보완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에 걸쳐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은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은 25점에서 12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지은[3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일 지역에 소재하는 두개 종합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각 대학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보조원이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이때 설문조사를 자발적으로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 후 바로 회수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평균 20-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은 1학년 87명(29.2%), 2학년 72명(24.2%), 3학년 70명(23.4%), 4학년 69명(23.2%)이었고, 성별은 남자 64명(21.4%), 여자 234명(78.6%)이었다. 동아리 활동 경험은 있음이 97명(32.6%), 없음이 201명(67.4%)으로 많았다. 성격은 내성적 128명(43.0%), 외향적 170명(57.0%)이었고, 대인관계는 보통 132명(44.2%), 좋음 119명(40.0%), 나쁨 47명(11.7%) 순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고려 35명(6.0%), 주변권유 64명(21.5%), 성격고려 72명(24.2%), 취업보장이 105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졸업후 희망 진로는 대학병원 171명(57.3%), 2차병원 89명(29.9%), 보건소 16명(5.4%), 산업간호사 12명(4.0%)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98)

특성	구분	N(%)
학년	1학년	87(29.2)
	2학년	72(24.2)
	3학년	70(23.4)
	4학년	69(23.2)
성별	남자	64(21.4)
	여자	234(78.6)
동아리활동	있음	97(32.6)
	없음	201(67.4)
성격	내성적	128(43.0)
	외향적	170(57.0)
대인관계	좋음	119(40.0)
	보통	132(44.2)
	나쁨	47(15.8)
간호학과 지원 동기	적성고려	35(11.7)
	성적고려	72(24.2)
	취업보장	105(35.2)
	주변권유	64(21.5)
	기타	22(7.4)
졸업후 희망 진로	대학병원	171(57.3)
	2차병원	89(29.9)
	산업간호사	12(4.0)
	보건소	16(5.4)
	기타	10(3.4)

2.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3.56±0.69 점,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37±0.89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5±0.67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71±0.53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
 Table 2. Degrees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using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N=298)

변수	Min	Max	M±SD
대학생활적응	2.79	5.00	3.56±0.69
스트레스	2.19	5.00	2.37±0.89
전공만족도	2.78	5.00	3.95±0.6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39	4.82	3.71±0.5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스

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동아리활동($F=0.672, p<.001$), 대인관계($F=3.925, p=.003$), 졸업후 희망진로($F=2.419, p=.04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동아리에 가입하고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대학생활적응을 잘하였고,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대학병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학년, 성별, 성격,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학년($F=2.537, p=.016$), 성별($F=4.292, p=.008$), 성격($F=4.672, p<.001$), 대인관계($F=9.64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가 나쁜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러나 동아리활동, 간호학과 지원동기,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F=4.058, p=.026$), 간호학과 지원동기($F=9.847, p<.001$), 졸업후 희망진로($F=4.64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2학년과 4학년이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성적과 주변권유보다는 성적과 취업보장을 고려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대학병원과 보건소를 희망하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성별, 동아리활동, 성격, 대인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F=9.510, p<.001$), 간호학과 지원동기($F=4.568, p=.004$), 졸업후 희망진로($F=2.84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성적과 취업보장을 고려한 경우 성적고려와 주변권유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대학병원과 보건소를 희망하는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성별, 동아리활동, 성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98)

특성	구분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학년	1학년 ^a	3.55±0.39	2.572(.583)	3.61±0.44	2.537(.016) a,d>b,c	3.58±0.32	4.058(.026) b,d>a,c	3.56±0.40	1.382(.208)
	2학년 ^b	3.52±0.37		3.50±0.32		3.76±0.38		3.47±0.44	
	3학년 ^c	3.65±0.35		3.48±0.43		3.65±0.45		3.48±0.46	
	4학년 ^d	3.69±0.33		3.54±0.40		3.71±0.43		3.33±0.40	
성별	남자	3.57±0.38	1.945(.386)	3.62±0.36	4.292(.008)	3.81±0.37	1.458(.235)	3.39±0.32	2.945(.086)
	여자	3.61±0.36		3.49±0.34		3.59±0.22		3.65±0.45	
동아리 활동	있음	3.68±0.54	.672(<.001)	3.32±0.38	0.694(.447)	3.57±0.26	1.625(.204)	3.61±0.32	0.945(.601)
	없음	3.78±0.45		3.50±0.40		3.66±0.49		3.53±0.40	
성격	내성적	3.26±0.53	2.6906(.610)	3.55±0.43	4.672(<.001)	3.82±0.38	0.646(.425)	3.29±0.36	2.945(.446)
	외향적	3.15±0.48		3.22±0.37		3.80±0.42		3.38±0.33	
대인 관계	좋음 ^a	3.89±0.39	3.925(.003) a,b>c	3.52±0.38	9.642(>.001) c>a,b	3.39±0.34	7.625(.255)	3.58±0.41	9.510(<.001) a,b>c
	보통 ^b	3.74±0.53		3.54±0.39		3.24±0.35		3.38±0.37	
	나쁨 ^c	3.65±0.45		3.65±0.45		3.25±0.31		3.39±0.38	
간호 학과 지원 동기	적성 고려 ^a	3.64±0.38	1.328(.114)	3.51±0.39	1.382(.249)	3.57±0.34	9.847(<.001) a,c>b,d,e	3.82±0.45	4.568(.004) a,c>b,d,e
	성적 고려 ^b	3.47±0.36		3.56±0.38		3.48±0.39		3.78±0.35	
	취업 보장 ^c	3.61±0.34		3.65±0.41		3.54±0.43		3.81±0.46	
	주변 권유 ^d	3.55±0.42		3.54±0.37		3.44±0.35		3.74±0.49	
	기타 ^e	3.41±0.33		3.29±0.36		3.30±0.36		3.69±0.41	
졸업후 희망 진로	대학 병원 ^a	3.75±0.66	2.419(.045) a>b,c,d,e	3.58±0.61	1.645(.064)	3.78±0.45	4.648(<.001) a,d>b,c,e	3.75±0.67	2.847(<.001) a,d>b,c,e
	2차 병원 ^b	3.49±0.39		3.54±0.41		3.69±0.47		3.62±0.49	
	산업 간호사 ^c	3.43±0.97		3.56±0.39		3.62±0.49		3.56±0.73	
	보건소 ^d	3.60±0.35		3.27±0.44		3.77±0.44		3.71±0.44	
	기타 ^e	3.42±0.57		3.36±0.33		3.56±0.73		3.12±0.44	

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r=-.318, p<.001$)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도($r=.697, p<.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r=.524, p=.001$)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r=-.232, p<.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r=-.375, p<.001$)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r=.646, p<.001$)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using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N=298)

변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r(p)			
대학생활적응	1			
스트레스	-.318(<.001)	1		
전공만족도	.697(<.001)	-.232(<.001)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24(.001)	-.375(<.001)	.646(<.001)	1

5.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값이 1.862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고, 독립변수 간 공차한계는 .717-.857로 0-1사이였고, VIF는 1.168-1.385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종속변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투입하고, 독립변수로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대인관계, 간호학과 지원동기, 졸업후 희망진로를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방정식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F=18.473,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4.8%였다.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452, p<.001$), 대학생활적응($\beta=.417, p=.001$), 대인관계($\beta=.356, p<.001$), 졸업후 희망진로($\beta=.337, p=.032$), 간호학과 지원동기($\beta=.256, p<.001$), 스트레스($\beta=.218, p<.001$)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Effects of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N=298)

변수	B	SE	β	t	p
(상수)	14.037	4.545		3.695	.002
대인관계	.529	.212	.356	2.832	<.001
간호학과 지원동기	.163	.186	.256	1.578	<.001
졸업후 희망진로	.197	.234	.337	3.963	.032
대학생활적응	.534	.328	.417	3.074	.001
스트레스	.635	.239	.218	1.034	<.001
전공만족도	.669	.362	.452	2.308	<.001
Adjusted $R^2=.448, F=18.473,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5] 연구에서는 3.50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김중경, 김원종과 이선주[35] 연구에서는 3.32점, 임재란과 김순영[36]의 연구에서는 3.30점이었고, 박희옥, 박수진과 김정윤 등[11]의 연구에서는 3.24점으로 모두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중등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대처를 잘

하고[35], 전공만족도가 높으면서[3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면[11], 대학생활적응을 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3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김세윤[37]의 연구에서는 2.34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임재란과 김순영[36]의 연구에서는 1.57점, 박희옥, 박수진과 김정윤 등[11]의 연구에서는 1.65점, 김중경, 김원종과 이선주[35] 연구에서는 2.15점으로 모두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들은 학업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당면문제에 대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37]. 스트레스 유발원인 중 학업문제가 높은 이유는 학업성적이 졸업후에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6]. 그래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5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38] 연구에서는 4.23점이었고, 정진숙, 정미조와 유일영[19]의 연구에서는 3.56점, 황은희와 김건희[39]의 연구에서는 4.07점, 조미옥과 백경화[40]의 연구에서는 3.64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허은주와 김은정[41] 연구에서는 3.54점이었고, 홍시명[42]의 연구에서는 3.87점으로 모두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전공만족도는 중등도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높이고, 간호학 전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여 적용 해야한다[43]. 그리고 적성을 고려한 전공선택이 아닌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아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지속적으로 유대적인 관계 노력이 필요하다[19].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소통하면서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 및 진로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

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임현숙과 류정립[44]의 연구에서는 3.52점이었고, 황은희와 김건희[39]의 연구에서는 3.66점, 박희옥, 박수진과 김정윤 등[11]의 연구에서는 3.80점, 김경하[4]의 연구에서는 3.57점으로 모두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중등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43]. 그리고 박희옥, 박수진과 김정윤 등[11]의 연구에서는 간호학과에 적성이 맞고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그래서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를 증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동아리 활동, 대인관계, 졸업후 희망진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아리에 가입하고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대학생활적응을 잘하였고,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대학병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기적인 교수자 면담, 동아리 활동,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35]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지도교수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학년에 맞는 단계별 인성교육을 통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일 경우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36].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갖으며 취업에 대한 보장이 될 때 대학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한다[35]. 그래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선후배간에 지속적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학업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학년, 성별, 성격,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는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가 나쁜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문제와 장래문제가 스트레스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16]. 과중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본인 혼자 견디고, 학업성적이 졸업 후 병원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체

적,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35].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제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 간호학과 지원동기, 졸업후 희망진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는 2학년과 4학년이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성적과 주변권유보다는 적성과 취업보장을 고려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대학병원과 보건소를 희망하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 중 2, 4학년이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고[42], 학년이 높고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학교성적에 맞추어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결과[19]와 졸업후 진로를 의료기관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39]와 유사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중요하다고 믿는 인지적, 감정적, 정의적 측면을 말한다[31]. 간호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40]. 그래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학년별 진로와 교수법 개발 및 전공과 관련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 간호학과 지원동기, 졸업후 희망진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적성과 취업보장을 고려한 경우 성적고려와 주변권유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대학병원과 보건소를 희망하는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직이면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고 학과에 만족하면서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1]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간호대학들은 졸업 후 희망근무지가 대학병원이 가장 많이[38]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진로선택에 있어 희망하는 근무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38]. 그래서 폭넓은 분야에 대한 취업기관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성하여 전공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1]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1]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9][38][41][43]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은 스트레스가 낮고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공만족도를 높여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45].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졸업후 희망진로, 간호학과 지원동기, 스트레스 순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공에 만족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약 4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1][19]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들에게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전공선택 동기를 강화시키고, 취업의 전망 및 안

정성을 고려하여 진로지도 및 전공에 반영하여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여야 한다[41]. 그래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성에 맞는 간호학과 선택과 전공에 만족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인관계를 향상시켜 대학생활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었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전공에 만족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학업성적과 취업 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진학한 간호대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탐색과 취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중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고,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지도를 위한 방안과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진로탐색 및 전공과 관련된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두개 종합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간호학과 지원동기, 졸업후 희망진로,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들 변인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4.8%이었다. 그 중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었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전공에 만족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학업성적과 취업 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진학한 간호대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탐색과 취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중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고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지도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두개 종합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전체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여러 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 이외에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해 조사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Kim GH, Hwang EH,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436-445, 2016. DOI:http://dx.doi.org/10.5762/KAIS.2016.17.2.436
- [2] Shin HJ, Park HJ,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2, pp.643-664, 2017. DOI: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22.643
- [3] Lee KA, Kim JH,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2, No 1, pp.42-49, 2015. DOI:http://dx.doi.org/10.16952/pns.2015.12.1.42
- [4] Kim KH,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3, pp.399-408, 2018. DOI:https://doi.org/10.5392/JKCA.2018.18.03.399
- [5] Kwag HJ,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resilience and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20.
- [6] Choi SO, Park, JK, Kim SH,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182-189, 2015.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182
- [7] Choi SH, "Effects of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1, pp.148-156, 2018. DOI:https://dx.doi.org/10.5762/KAIS.2018.19.11.148
- [8] Kim HJ, Park DH, Seo MS, "The Effect of Group Bullyi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 16, No 3, pp.115-123, 2021. DOI:https://doi.org/10.21097/ksw.2021.08.16.3.115. DOI:https://doi.org/10.32465/ksocio.2015.25.1.006
- [10] Lee GS, Do SJ, Song HA,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3, pp.53-73, 2016. DOI:http://dx.doi.org/10.21509/KJYS.2016.03.23.3.53
- [11] Park HO, Park SJ, Kim JY, Choi HS "The effects of College life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turity of Career attitude of New Nursing Studen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9, pp.136-146,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9.136
- [12] Im HJ, Lee S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Mediating Effects of Career stress Career resilienc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s*, Vol 45, No 2, pp.21-30, 2020.
- [13] Kim EY, Lim KS, "The Effect of Stress on the Happiness Index of Nursing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 pp.381–391, 2017.DOI:<http://doi.org/10.35873/ajmahs.2018.8.6.020>
- [14]Ahn KY,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and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food service business”,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 16, No 2, pp.193–201, 2014. DOI:<http://dx.doi.org/10.12812/ksms.2014.16.2.193>
- [15]Kim JK, “A Review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47–59, 2014.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47>
- [16]Cha HS, “Influence on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mong 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8, pp.381–391, 2019.DOI:<http://dx.doi.org/10.5762/KAIS.2019.20.8.381>
- [17]Kim JY,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Sungsh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18] Jung YM, “ Effects of Perceived Motivation for Selecting Major of Aviation Tourism on Work Values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98, No 0, pp.625–645, 2020. DOI:<http://dx.doi.org/10.18604/tmro.2020.24.5.29>
- [19]Jung JS, Jeong MJ, Yoo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27–36, 2014.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 [20] Kwon YC, Jeong CY, Seo YS,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 pp.197–206, 2018. DOI:<https://doi.org/10.14400/JDC.2018.16.1.197>
- [21]Moon, IO, Lee GA,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83–91, 2010. . DOI:<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22]Taylor, K. M., & Betz, N. 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 [23]Seo KW, Moon HK,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Resilience, Self-efficacy, Self efficacy of Caree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6, pp.233–242, 2018. DOI:<https://doi.org/10.35873/ajmahs.2018.8.6.020>
- [24]Yoo JB, Bang SY, “The Effects of Hypertrophic Health Nursing Volunteer Progra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021, No 2, pp.103–106, 2022.
- [25]Kim SO,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2, pp.210–219, 2016.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2.210>
- [26]Kang HW, Lim JS, “The Verification on the Mediating Effect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through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5, No 1, pp.569–578, 2016.
- [27]F. Franz,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Vol 41, No 4, pp.1149–1160, 2009. DOI:<https://doi.org/10.3758/BRM.41.4.1149>
- [28]Park S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ankoo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7.
- [29]Chon KK, Kim KK, Lee J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5, No 2, pp.316–336, 2000.
- [30]Lee JY,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 Kong 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31]Ha HS, “A Study on Department (Undergraduate)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32]Lee DJ,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33]Lee EJ, “Effects of the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3, pp.621–636, 2002.
- [34]Yun JO, “The Structural Analysis on the

- Relationship among Social Capital within Family, Positive Coping Strateg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ollege Students: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aegu Haany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8.
- [35] Kim JK, Kim WJ, Lee SJ,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7, pp.120-126, 2020. DOI:https://doi.org/10.5762/KAIS.2020.21.7.120
- [36]Lim JR, Kim SY,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Korea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utumn conference, Vol 2018, No 10, pp.320-320, 2018.
- [37]Kim SY, “Menstrual attitudes, stress and premenstrual syndrome of nursing students”, Ko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38]Park SA, Shin KS, “Effect of Nursing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2, pp.592-601, 2023. DOI:https://doi.org/10.5762/KAIS.2023.24.2.592
- [39]Hwang EH, Kim KH,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Yangaeng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 12, No 4, pp.457-467, 2017. DOI:https://doi.org/10.21097/ksw.2017.11.12.4.457
- [40]Cho MO, Baek KH,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Policy, Vol 2, No 1, pp.37-44, 2023. DOI:https://doi.org/10.2319/JDP.2023.2.1.037
- [41]Heo EJ, Kim EJ,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12, pp.59-69, 2021. DOI: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12.059
- [42]Hong SM,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ress, Self-esteem,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Vol 0, No 17, pp.1-13, 2022. DOI:http://doi.org/10.52902/kjsc.2022.17.1
- [43]Kim MH,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ukyo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1.
- [44]Lim HS, Ryu JL,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Mak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11, pp.151-160, 2020. DOI:https://doi.org/10.5762/KAIS.2020.21.11.151
- [45]Kim YJ,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20.

※ 이 논문은 2023년 광주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